

# 20세기 후반 디자인 트렌드의 형성요인과 색채 트렌드 분석

The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Design Trends and Color Trends  
in the Late 20th Century

주저자 : 김현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

**Kim Hyun Kyung**

Yonsei University

공동저자 : 김영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Kim Young In**

Yonsei University

1. 서론

2. 트렌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 트렌드의 개념과 분석방법
- 2.2. 트렌드의 진행 프로세스
- 2.3. 트렌드의 형성요인과 디자인의 연관성

3.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과 디자인트렌드

- 3.1.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
- 3.2. 20세기 후반 디자인 분야별 트렌드

4. 20세기 후반 트렌드 분석

- 4.1.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방법
- 4.2.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흐름
- 4.3. 20세기 후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 및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메가트렌드와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변화를 분석하여 디자인의 색채트렌드를 예측·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트렌드의 형성요인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영역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20세기 후반(1970~2002년)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분석하고,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션, 공간, 제품, 시각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20세기 후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를 분석하여 근 미래의 색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20세기 후반 트렌드는 여성적 사고, 자연으로의 회귀, 은둔 속 안식 트렌드로 요약된다. 둘째,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은 70년대부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가 지속되면서 80년대 후반 에콜로지를 반영하였다. 90년대, 모더니즘이 다시 부각되고 에콜로지 경향이 지속적으로 디자인에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 여성적 사고와 자연으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트렌드가 지배적이었다. 셋째, 20세기 후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는 Red 중심에서 Purple Blue 중심으로, grayish 중심에서 dull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근 미래에는 Purple Blue, Yellow Red, Green 색상과 grayish, dull, deep 색조, 여성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무

채색 계열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트렌드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메가트렌드와 디자인트렌드와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트렌드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트렌드의 형성요인, 디자인트렌드, 색채트렌드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flows of mega-trends and design trend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rend and design trends in the late 20th century. Moreover, it is to forecast and recommend design color trends by evaluating color trends in design trends for the near future.

Secondary and primary research were used in parallel. In the late 20th century, mega-trends were analyzed from secondary research based on PEST<sup>1)</sup>. Design trends were analyzed from case studies in fashion, space, product and visual design. On this basis, design color trends were analyzed. Also, color trends were forecast for the near fu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in trends in the late 20th century were 'female thinking', 'back to the nature' and 'heaven of peace'. Second, main design trends in the 1970s were modernism, post-modernism and high-tech. In the 1980s, with those of the 1970s, ecology was introduced in the late 1980s. In the 1990s, modernism rose again and ecology had an influence. The trends of 'female thinking' and 'back to the nature' controled the design in the early 2000s. Third, design colors in the late 20th century changed from Red to Purple Blue. Tones changed from 'grayish' to 'dull'. Finally, it was forecast that Purple Blue, Yellow Red and Green colors with 'grayish', 'dull' and 'deep' tones were going to be used mainly in the near future. Also, achromatic colors with female and warm nuances would be reflected in design parts.

This research will be very useful in that it has built a concrete database reflected on design trends forecasting in the near future by organizing academically a methodology to identify trends reflected on design and identifying relation between mega-trends and design trends based on analyzing factors that influence trend.

(Keywords)

trend influential factors, design trends, color trends

1) Political, economical, sociological, technological environments

## 1. 서론

디자인에 있어서 선진적인 국가, 기업 및 디자이너들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이를 디자인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디자인트렌드의 분석과 예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아직까지도 트렌드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과 활용이 미흡하며 해외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자인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트렌드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기호론적 트렌드 분석방법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 및 디자인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메가트렌드와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의 변화를 분석하여 근 미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트렌드의 형성요인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영역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20세기 후반(1970~2002년)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분석하고,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션, 공간, 제품, 시각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20세기 후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근 미래의 색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 2. 트렌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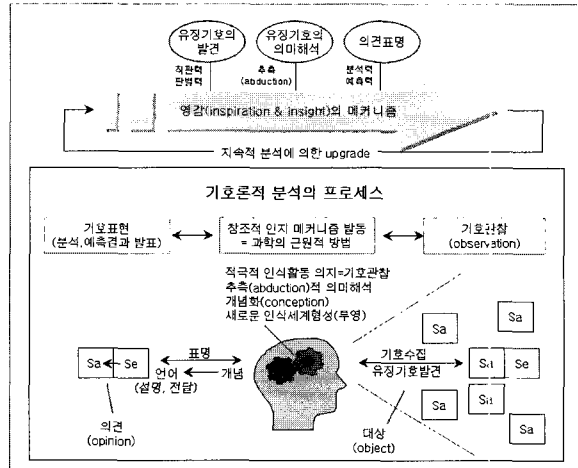
### 2.1. 트렌드의 개념과 분석방법

트렌드의 일반적인 의미는 '경향(傾向)·동향(動向)·변동(變動)·조류(藻類)·추세(趨勢)'이며, 특히, 패션에서는 현재 '유행의 최첨단' 또는 '다음에 오는 새로운 경향·유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트렌드는 유행과 달리 수명주기가 매우 길다. 메가트렌드는 평균 10년 이상, 디자인트렌드는 3~5년 정도 지속된다.

트렌드 분석방법 중 하나인 기호론적 분석 프로세스는 인지과학에 근거하여 형성된 직관력과 판별력을 통하여 현실 속 생활세계의 기호들을 적극적인 인식활동에 의지하여 관찰하고, 관찰된 수많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기호정보 중에서 유행기호를 발견하여 의미를 해석·예측하고 개념화하여 새로운 인식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호론적 접근에 의한 분석방법은 현재의 사회, 사람들의 행동 등을 관찰하여 트렌드화 될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분석·해석하여 제시되는 트렌드 예측과 유사한 분석단계를 거치며, 과학의 근원적 방법에 기초하여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렌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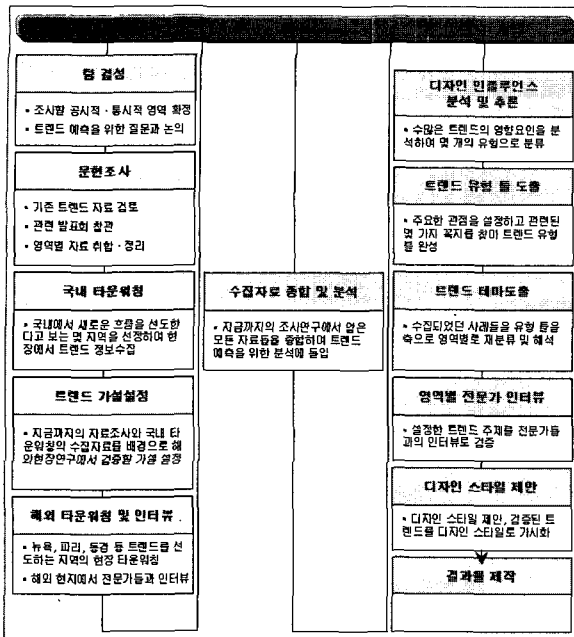
[그림 1] 인지과학에 근거한 기호론적 분석모델 (박영배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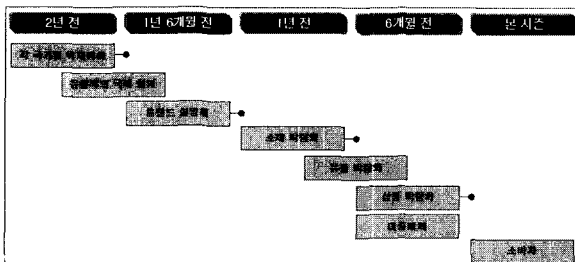
### 2.2. 트렌드의 진행 프로세스

트렌드는 인식형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된다. 적절한 시기에 트렌드가 공유되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트렌드는 트렌드 예측기관에 의해 2~3년 전이라는 근 미래의 시간적 범위 안에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렌드의 진행 프로세스는 크게 트렌드의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단계인 트렌드 분석 프로세스와 예측된 트렌드가 디자인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단계인 트렌드의 시계열 프로세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 트렌드 분석 프로세스 (전경련 산업디자인 특별위원회 2002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



[그림 3] 트렌드의 시계열 프로세스 (김영인 외 1999을 참조로 연구자가 수정)



### 2.3. 트렌드의 형성요인과 디자인의 연관성

오늘날 시장환경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과학 · 기술의 총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메가트렌드를 이끄는 유정기호들을 포함하는 중요한 트렌드의 형성요인이며 디자인을 에워싸고 있는 제반환경요인으로서, 디자인트렌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본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의 형성요인을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과학 · 기술의 네 분야로 나누어 디자인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국가통치 형태와 국제간의 정치적 교류 등은 트렌드에 반영되는 정치적 요인이다.

경제성장과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확립되어 있으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구매력이 자국되며 다양한 디자인제품이 창출된다. 결국, 경제변화는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그 관계를 모색하게 만든다.

보존성을 지닌 디자인 결과물은 그것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게 되며 그로 인해 그 결과물에서 독특한 문화를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란 개인의 내면적, 외연적 생활의 디자인이며 문화 자체가 인간 생활을 위한 전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행위는 문화창조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디자인 결과물은 문화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문화적도의 지표적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의 개념은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디자인 또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개인의 인성에 따라 사회 · 문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하겠다.

과학 · 기술은 기계 및 도구들뿐만 아니라 과학지식까지도 포함한다. 디자인은 과학 · 기술과의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적절한 조화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학 · 기술이 사물을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체계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과학 · 기술의 대상은 우리 삶 안의 모든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 · 기술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것은 곧 디자인의 과학 · 기술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 3.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과 디자인트렌드

### 3.1.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

디자인트렌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총체적인 요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과학 · 기술로 분류하여 20세기후반 디자인트렌드를 도출해 내기 위한 유정기호들을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3.1.1. 정치적 요인

1970년대에는 베트남에서미국의 패배를 비롯해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닉슨 대통령의 사임, 칠레에서의 아옌데 정부의 붕괴, 이스라엘과 이집트 및 시리아 간의 욘키푸르 전쟁,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레바논 내전의 시작, 이란 왕조의 몰락,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을 겪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평화협정조인으로 일단락되고 미 · 중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등소평에 의한 개혁정치가 추진되면서 냉전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1977년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이 최초로 이루어지면서 평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이어졌고 1978년에는 캠프데이비드협상이 체결되었다. 70년대의 국내정치는 박정희 정부의 권력유지과정과 그에 대항한 대학생 및 민주인사들의 저항운동으로 요약

된다. 또한 노동운동이 격화되었다. 12. 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군부세력은 정치적 민주운동과 경제적 노사문제 등을 낳았다.

198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이분적 세계정세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1987년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한 개방정책으로 국제냉전체제가 풀리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정치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1987년 정치사의 흐름을 바꾸는 '6. 29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1991년 걸프전이 미군 및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00년에 걸친 인종차별을 종식시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평화협정을 조인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오랜 신·구교도 유혈분쟁이 중단되었고, 교황 바오로 2세의 중동성지순례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 11 테러는 세계정세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1990년대 국내에서는 1993년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이 정치, 경제 측면에서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대북정책에서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1994년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고 북측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동해교전으로 인해 남북의 분위기는 또다시 악화되었으며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논쟁은 미국과의 관계 또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3.1.2. 경제적 요인

1970년대는 세계 경제의 인프라 현상이 심했던 불황의 시기였다. 1973년 가을 중동전쟁은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6개월 동안 유가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세계무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편, 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경제는 안정을 되찾았고,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1978년 또 다시 찾아온 석유파동은 다시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새마을운동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다. 수출확대정책과 중동건설 붐으로 1976년에서 1978년까지 한국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다.

1983년 석유수출국기구가 유가를 인하하면서 80년대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우

루과이라운드협상을 개시하였다. 일본은 80년대 중반 엔화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알려진 세계주식시장 붕괴가 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경제상황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80년대 초 전두환 정부는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는 경제안정기조의 정착배경이 되었다.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은 1986년 3저 현상<sup>2)</sup>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제의 질적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1990년대는 경기후퇴의 재발로 시작되었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공식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9년 반 WTO 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의 시위와 함께 세계경제가 미국 일변도로 재편되는 듯이 보이는 동안 1993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완성뿐 아니라 공동의 외교·국방 정책을 목표로 하는 조약을 조인하였으며, 1999년 1월 유럽 단일통화 유로(Euro)가 등장하며 세계사의 주역으로 재등장했다. 한편,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과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1998년 아시아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유럽으로 넘어갔다. 2000년대는 IT혁명과 디지털가치의 확산에 의한 뉴이코노미 시대로 세계경제가 재편되었다. 인터넷비즈니스가 일반화되면서 경제활동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1993년 한국 정부는 수년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타결지었다. 한편,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화·국제화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개방화정책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정책 이후 한국 사회는 고급소비가 커지고 사치성 수입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과 사치성 소비, 대기업 부도사태의 시발점인 한보사태는 결국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러 경제저성장과 고실업에 봉착하였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IMF의 관리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생기업들의 출현과 발전은 벤처기업 붐의 조성으로 이어졌다.

### 3.1.3. 사회·문화적 요인

1970년대 젊은이들은 생활을 개성화하였으며, 건강과 활동을 중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역할이 커졌으며, 인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70년대는 다원주의 시대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 영화와 팝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대중음악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지배문화와 전통에 대

2) 국제유가하향안정, 저금리, 달러화 약세

한 거부정신으로 등장하였다. 70년대 한국사회의 주요한 변화는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였다. 이에따라 새로운 문화와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또한 달라져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적 경향, 광고의 확대현상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물질적 성공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각종 대중매체가 발달하여 전국에 걸쳐 보급, 보편화 되었다.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은 문화예술의 상업성 증대라는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6. 25 이후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해 '청년문화'로 불리는 청소년 중심의 대중사회적 하위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시설과 기회의 확대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와같은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대중사회화 되었다.

1980년대에는 체르노빌 핵 폭발사건으로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재해를 체험하게 되었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경향이 나타났는데, 1983년에 미국의 여피족이 산업계,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는 고정된 사고가 해체되면서 주변문화로서 그동안 도외시되어 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는 해외여행 자유화, 수입 자유화와 같은 개방정책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는 물론 외국과의 문화접촉기회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문화의 수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수출의 증가와 물가의 안정으로 점차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80년대 후반에는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따라서 여가가 중시되었으며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었고, 70년대 경제성장의 결실을 직접 누리며 성장한 신세대가 등장하여 새로운 의식변화가 이루어지고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개성화, 개방화의 경향이 현저해졌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대중문화, 관광, 스포츠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1987년 6. 29선언 이후 출판사등록 전면개방(1987. 10. 19), 판금도서 해제, 금지가요 해제, 공연물의 사전심의 폐지 등이 시행되어 국내 사회·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세계는 경제력에 바탕을 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양상을 보이며 글로벌화 되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환경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빈곤, 기아, 문맹의 극복, AIDS의 퇴치, 국가간의 개발격차해소가 세계의 관심사로 등장했고, 1996년 유럽 광우병 파

동을 통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의 물리적 거리가 지나는 의미가 약해졌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소비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에는 퍼스널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정보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전후 컴퓨터 세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리조트와 쾌락, 감각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류계급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중상계급이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이들에 의해 소비가 확대되고 더욱 성숙해져 생활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다. 인구문제와 식량위기, 소비와 자원개발, 자연과 파괴 등 유익한 지구개념이 소비의식에 자극을 주어 에코로지마크가 등장하는가 하면, 녹색연합 등의 환경보호단체들의 움직임이 크게 가시화되고,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환경친화상품이 선보이게 되었다. 90년대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사고가 많았으며, 문화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행사들이 추진되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사회를 불안하게 했고, 1990년 안면도 주민들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시위와 1991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으로 국민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환경오염시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 내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저지운동이 많았다. 또한, 90년도를 전후로 불어 닦친 거품경제의 영향은 소비위축을 가져오며 생산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소비자중심의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1990년 1월에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중앙행정부서인 문화부가 발족되었다. 1995년에는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건립되었으며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각종 비엔날레나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치러졌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신드롬이 몰아쳤으며 네티즌문화가 형성되었다. 2000년대는 사회·문화적으로 기존 가치관에 위배되는 다양한 양상이 대두되면서 모순되는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휴대전화기와 인터넷의 일상화는 젊은이 중심 문화의 사회 내 파급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 3.1.4. 과학·기술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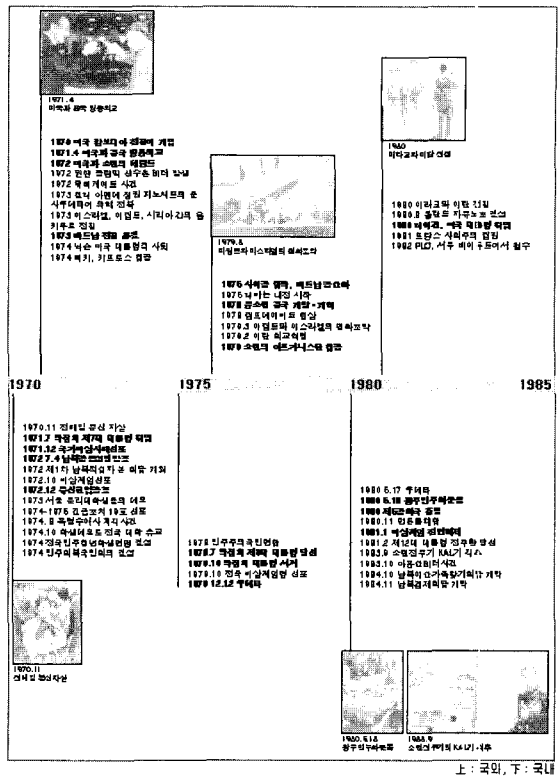
1970년대는 우주경쟁시대였다. 1977년 애플사의 퍼스널컴퓨터 개발은 80년대 PC혁명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고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영국에서 출생하면서 생명공학이 급속하게 발전했다. 70년대에 국내 과학·기술은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의 기본을 수출에 두고 선진기술을 이어받아 이를 뒷받침하였다.

1980년대에 애플과 IBM의 경쟁 속에서 급속히 보급된 PC는 인류의 생활을 바꿔 놓았다. 이에따라 정보인

프라스틱이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며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환경을 위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80년대 초 원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주사형(走査型) 터널링현미경과 원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반도체산업과 나노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80년대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역사가 길지 않은데다 외래기술의 도입과 모방에 의존해왔던 과거의 정책으로 인하여 자체기술이 미진한 실정이었다. 선진국의 기술독점과 기술 보호주의, 중화학 공업에의 평준투자,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출둔화와 같은 국가 안팎의 불리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첨단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전자통신, 신소재,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술고급화, 기술선진화를 달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80년대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미디어 등 이른바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반도체산업은 80년대에 이르러 괄목할만한 성장과 질적변모로 한국 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 허블우주망원경의 발명과 함께 우주에 대한 연구가 또 다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우주로 많은 위성이 쏘아 올려졌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여행이 계획단계에 있다. 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환경이 조성되었다.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의 환경은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며 1992년 인터넷의 상용화와 1994년 웹사이트의 등장, 점차적인 휴대전화기의 보편화는 이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의 탄생에 이은 2001년 인간게놈지도의 완성은 생명공학 붐을 일으켰다. 90년대에는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반도체 3사, 전자통신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개발의 성과로서 1993년에 8인치 16 메가디램 반도체의 대량생산공장이 준공되었으며, 1994년 8월에는 256 메가디램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를 거쳐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90년대에는 정보통신의 기간(基幹)을 이룰 수 있는 컴퓨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의 활용도가 증대되었다. 한편,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정치 요인(1)



[그림 5] 정치 요인(2)



[그림 6] 경제 요인(1)

<p>197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71 닉슨 충격조치로 달러 강고화</p> <p>1971.3 달러 환율 고정 종료</p> <p>1973 유가 상승</p> <p>1973 국제 통화 회의</p> <p>1974 에너지 위기</p> <p>1974 에너지 위기</p>	<p>1974 OPEC 유가 상승</p> <p>1975 유가 하락</p> <p>1975 유가 상승</p> <p>1975 유가 하락</p> <p>1975 유가 상승</p> <p>1975 유가 하락</p>	<p>1979 인플레이션</p> <p>1979 인플레이션</p> <p>1979 인플레이션</p> <p>1979 인플레이션</p> <p>1979 인플레이션</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70.7 광주 4.19</p>			

상: 국외, 하: 국내

[그림 8] 사회·문화 요인(1)

<p>1970 스웨덴 1970년 노조 파업</p> <p>1970 스웨덴 1970년 노조 파업</p> <p>1970 스웨덴 1970년 노조 파업</p> <p>1970 스웨덴 1970년 노조 파업</p>	<p>1975 신자유주의 영향</p> <p>1975 신자유주의 영향</p> <p>1975 신자유주의 영향</p> <p>1975 신자유주의 영향</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70.7 광주 4.19</p>			

상: 국외, 하: 국내

[그림 7] 경제 요인(2)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4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85.4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85.4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85.4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5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5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5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5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200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200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200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200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상: 국외, 하: 국내



[그림 9] 사회·문화 요인(2)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95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2000 미국 경기 열세, 보호무역주의 강화</p>
<p>1985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1995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p>2000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공 지능</p>

상: 국외, 하: 국내



[그림 10] 과학·기술 요인(1)

1970	1975	1980	1985
1971 Intel 4004 micro processor (초기) 1971 에이즈드 웨이브 1972 Xerox personal computer 1974 테리나 1호 프로세서	 1975 최초의 메인프레임 TV 모니터 (C. Scheidt) 1974 Super computer (Cray 1 (미국)) 1975 16K 칩 1975 최초의 이터널 1호 혁신 주간 커뮤니케이션 1977 Apple II PC (개인용) 1977 우주 비행선 Voyager가 제1회인 25년째 로켓으로 보내짐 1977 Packard micro computer (H. Packard) 1977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가 출생(인류) 1978 8K 칩 1978 Intel 8088 micro processor 1978 16비트 인텔 프로세서 1978 Philips Laser disk 1979 Compact disk 프로세서 1979 Word processor 응용 1979 Motorola 68000 micro processor 1979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80 Database 관리 software (IBM) 1980 최초의 지상파 우주선 텔레비전 방송 1981 IBM Personal computer (4.4K MS-DOS 시스템) 1981 Sony Digital camera (Minicam) 1981 Flippy disk 1981 우주비행선 엔젤(인공) 계획 1981 Apple Macintosh (초기) 개인용 1981 IBM Personal System/2 (PS/2) 계획 1981 세계 최대의 레이저 레저 공연 1984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8 1호 우주비행선 텔레비전, 텔레비전 프로세서 1979 프로세싱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1979 프로세서 테리나-1호 프로세서

상: 국외, 하: 국내

### 3.2. 20세기 후반 디자인 분야별 트렌드

20세기 후반의 디자인트렌드를 패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2.1. 패션 디자인

1970년대 여성들은 실용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의 의복을 즐겼다.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 패션은 개인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개념에 가까웠다. 여성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유니섹스 스타일의 팬츠 슈트가 주류를 이루었다. 70년대 후반에는 슈트의 어깨가 강조되고 스커트의 폭이 좁은 테일러드 룩으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파워가 더욱 강조되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자 작업복이나 운동복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으며 글래머스 룩이 일반화되었다. 하위집단들이 즐기는 소재인 진과 티셔츠가 디자이너들에 의해 고급화되어 젊은층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였으며 합성섬유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펑크패션이 하이패션에까지 이르렀다. 니트나 저지류가 패션의 주요 소재가 되었고 전원풍과 이국풍 의상이 정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70년대에는 내추럴 색채가 유행하였다.

후반기에 나타난 글래머스 룩에서는 흑백의 무채색, 베이지 등과 흰색, 검정, 빨강의 강렬한 색이 등장하였다. 국내의 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간편하고 값이 싼 합성섬유 특히, 폴리에스터와 저지류의 인기가 높았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교육 평등화로 의복에 있어서 성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다. 70년대에는 유니섹스 패션이 새로운 현대패션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블루진은 청년문화를 대변하며 인기가 있었고 판탈롱이 인기였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자유롭고 활동적인 레이어드 룩과 니트웨어가 보급되고 스포티한 요소가 의복에 가미되었다. 이는 후반 빅 룩과 테일러드 룩으로 연결된다. 1970년대 국내 패션의 색채경향은 안정감을 주는 어둡고 짙은 블랙과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기본이 되었다.

19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이 다양하게 표출된 시기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성복의 슈트에 여성성을 더한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이 유행하였다. 또한 경제적 성장으로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패션이 다양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80년대 초에는 재패니즈 룩이 유행하였다. 80년대 중반에는 앤드리지너스 룩과 바디컨셔스(body conscious)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민속풍이 유행하기도 했으며, 에콜로지 가 유행테마로 등장하였다. 또한, 아메리칸 이

[그림 11] 과학·기술 요인(2)

1985	1990	1995	2000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85 인텔 386 마이크로 프로세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0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1995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2000 IBM OS/2 운영체제

상: 국외, 하: 국내

지(american easy)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80년대 패션 디자인의 색채경향은 초반에는 재패니즈 스타일의 영향에 의한 무채색과 내추럴 색채가 지배적이었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바디컨서스 스타일과 함께 밝고 화려해지면서 선명한 색조와 맑고 연한 색조가 유행하였다. 후반기에는 에콜로지와 관련된 녹색이나 파란색이 등장하였고, 무채색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검정이 주요한 색채로 흰색과 함께 활용되었다. 80년대는 국내 패션이 대중적으로 산업화되고 감성화 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시행된 교복자율화에 의해 청소년 캐주얼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패션 진'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80년대에는 스포츠웨어 시장이 부각되면서 패션시장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80년대 초기에는 재패니즘의 영향으로 빅 룩과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고 점차 어깨를 강조한 역삼각형 실루엣이 부각되었다. 또한 유니섹스 룩이 유행하였고, 바디컨서스 스타일과 스키바지가 인기를 누렸다. 80년대 후반기에는 페미닌 룩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에콜로지와 에스닉 경향이 디자인과 소재, 색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메리칸 캐주얼이 부각되었다. 점차 토털 룩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타킹과 신발이 패션화 되고 액세서리가 대중화되었다. 80년대 초반에는 내추럴 지향의 영향으로 다양한 회색조와 카키색이 유행하였다. 중반에 이르러 밝고 화려해지면서 선명한 비비드 색채와 맑고 투명한 파스텔 색채가 활용되었다. 이에 대한 역반응으로 후반기에는 무채색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검정이 많이 이용되었으며 흰색과의 대비효과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

1991년 걸프전으로 인해 국기 무늬를 의상에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미국의 영화 및 대중음악이 국제적으로 토착화되고, 아메리칸 캐주얼이 세계를 공략하면서 이제까지 오프쿠르르, 프레타포르테, 스트리트 패션 순으로 영향을 미치던 패션흐름이 역전되었다. 1990년대에는 리사이클 패션과 에콜로지 패션이 더욱 발전·확산되었다. 또한,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재구성된 세련된 패션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 경향은 에콜로지와 연결되어 에스닉과 그런지(grungy), 네오히피, 레트로, 스트리트 패션 등의 스타일로 나타났다. 90년대 중반의 미니멀리즘 패션은 90년대를 특징짓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는 하이테크 소재들의 개발을 통해 시스루 룩, 아방가르드 룩과 스포츠 룩, 캐주얼 룩이 강하게 부상하였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스포

츠 라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 패션은 복고풍을 중심으로 로맨틱한 스타일이 세계 시장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90년대의 색채경향은 초기 리사이클과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내추럴 색채가 주류를 이루었다. 같은 맥락에서 바디스킨에 대한 관심은 베이지 계열의 유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중반에는 그린, 블루, 마이올렛, 레드 등의 다양한 색상과 색조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후반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의해 무채색이 유행하였다. 90년대 국내 패션은 에콜로지, 에스닉, 레트로, 사이버, 아방가르드와 미니멀리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속옷 형태의 란제리 룩이 크게 인기를 끌었으며 가죽제품이나 모피가 대중화 되었다. 신세대가 급부상하면서 스트리트 패션이 영캐주얼 브랜드와 하이패션으로 전과되어 유행하였으며, 토털 코디네이트 개념이 확산되었다. 스포츠와 대중음악의 인기로 스포티 룩이나 힙합, 례계, 핑크 등의 스타일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90년대에는 지배적인 유행 없이 편하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의복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대중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패션 진' 시장의 고급화 경향 이후 중저가 이지캐주얼 브랜드가 꾸준히 등장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아방가르드 룩이 인기를 끌었고 스포티즘과 퓨처리즘의 영향이 패션에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로맨틱 패션과 레트로 경향이 패션에 높게 반영되었다. 90년대 초에는 내추럴하거나 뉴트럴한 색채가 유행하였으며 이후에는 동양의 신비스러운 검정색과 서양의 개방적인 빨간색이 부각되었다. 검정과 빨간을 선두로 모든 색들이 밝고 활기찬 색으로 돌아왔으며 복고풍의 영향으로 골드, 사이버와 테크노의 영향으로 펄이 가미된 색상이나 은색이 유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검정과 흰색이 부각되었다.

### 3.2.2. 공간 디자인

1970년대에 공간 디자인의 두 경향은 하이테크 양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고전주의 양식으로서의 회귀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고전주의에 대한 실험은 70년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또한, 해체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70년대 국내의 건축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규모화, 고층화 되었다. 도시화와 대단위 도시재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복합건물과 집합주택단지설계 등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실내공간에 관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실내 디자인은 뚜렷한 활동영역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의 건축경향은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팽창주의적 성향의 경제풍토는 공간 디자인

인의 거대화 경향을 가져왔다.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혁신으로 간주되는 뎀피스 디자인 그룹 등의 급진적인 디자이너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이들은 근대 규범에서 탈피한 미래지향적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새로운 조형개념과 표현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1980년도를 전후로 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은 과거 모든 형태질서와 기본원리를 해체하려는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해체주의로 대표될 수 있는 네오모더니즘이 등장하였다. 네오 모더니즘은 일상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지향하였다.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하이테크 디자인은 특히 건축 외관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고, 그 상관개념인 하이터치는 실내환경의 섬세한 부분에 적용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는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공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건축 전반에 걸쳐 서서히 기능주의적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건축형태를 자유로이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별성과 감성의 다원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실험하게 되었다. 제 3세계 건축가의 출현으로 조금씩 세대가 교체되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외국의 절충적인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론이 활발히 소개되면서 한국 현대건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는 실내 공간의 표현경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실내 디자인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전반적으로는 모더니즘 경향이 계속되었으며 88올림픽 이후 한국적 전통성에 관한 관심이 실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 내부공간을 응용한 표현양식이 다양하게 보여졌다. 80년대 후반에는 포스트모던의 조류와 함께 모더니즘의 변용 및 일탈적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선보이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공간 디자인이 세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지역적으로 변이되는 양상을 띠었다. 또한,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건축성향을 회상하고 그 시대의 건축관을 수용하고 변형하면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기술과 자연을 함께 건축에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건축에 반영되었다. 표현주의적인 하이테크 건축의 자리에는 보다 조심스러운 방식의 형태가 자리잡게 되었고 형태의 다양성이 나타났다. 생태학적 관점은 건축의 조형형태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건축가들은 생태학적 고찰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건축코드들과 특성 및 개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90년대를 전후해서 국내에서는 '해체건축'이라는 사조가 근대적인 주체와 건축의 구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90년대 초반에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 어디라도 실내 디자인이 영향을 미칠만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

었다. 다원적이고 색다른 변형적 표현요소가 실내공간에 나타났으며, 특히 90년대 후반에 유행하기 시작한 미니멀 디자인을 포함하여 그 표현방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 3.2.3. 제품 디자인

1970년대에는 하이테크 디자인이 크게 유행하였다. 모더니즘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디자인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상업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시대에는 금속과 섬유소재가 많이 활용되면서 직선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곡선적인 형태가 공존하는 특징을 가진다. 색채 측면에서는 검정과 흰색의 대비효과를 비롯한 무채색이 유행하였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제품에 다채로운 색채가 시도되었다. 국내의 제품 디자인은 1965년 외국 가전기업이 처음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제품산업의 국제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모더니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탈모더니즘 개념의 뎀피스 디자인 그룹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뎀피스는 모더니즘 디자인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창의성에 의존한 독특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60년대 이후 사용이 줄었던 알트미늄이 80년대 중반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 조지 펜시(Jorge Pensi) 등에 의해 사용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다. 다양한 신소재와 메탈소재가 모더니즘 디자인에 응용되면서 직선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80년대를 대표했고, 색채 측면에서는 메탈소재 자체의 색채가 투명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주는 제품이 많이 등장했다. 반면에 뎀피스는 이에 대항하여 강렬한 원색의 배색을 주로 활용하였다. 80년대 중반 컬러 TV가 대중화되면서 국내 제품 디자인의 컬러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외국제품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미니멀리즘이 대두되면서 제품 디자인에서도 단순함, 고급스러움 등이 1990년대 전반을 이끌었다. 90년대 후반에는 미니멀리즘에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 감각이 접목되는가 하면, 에콜로지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동양의 선(禪) 사상을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자연과 일치된 새로운 모더니즘을 구축하는 쥘 스타일이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에는 감성 디자인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전제품의 대명사였던 검정의 전성시대는 사라지고 파랑, 노랑, 빨강 등의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색들이 가전제품에도 선호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반투명으로 된 누드 제품이 선보이면서 제품시장에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 제품업체들은 한국형 제품, 인공지능 제품 개발과 더불어 디자인의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국내의 제품 디자인의 경향은 크게 여성 중심의 휴먼터치감성의 추구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과감한 기하곡선과 자유곡선이 사용되었으며 소재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기능성과 더불어 제품의 고급화가 추구되었다.

### 3.2.4. 시각 디자인

1970년대 초 기업들은 마크나 로고타입이라는 기업의 기본적 디자인 요소를 명함에서부터 건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개하는 시각적 통일작업을 꾀하고 시대성 있는 기업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영전반에 걸쳐 재인식을 도모하고 디자인이나 이미지의 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수법을 C.I(Corporate Identity)로 일신해 가기 시작했다. 70년대 C.I의 색채경향은 검정과 빨강, 파랑 등의 단색 사용이 대부분이었다. 70년대에 국내에서는 C.I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이루어졌다. 1974년 B.I(Brand Identity) 개발을 통해 동양맥주는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도입하였다. 동양맥주의 C.I 도입은 1975년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C.I 도입의 추진 배경이 되면서 집단·기업의 C.I 도입은 단지 심벌과 로고의 개발이 아닌 C.I를 도입하는 집단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혁신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금융권의 C.I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권의 C.I 개발은 개발주체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노출빈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컸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정보화 시대는 더욱 진전되었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화되었다. 기업은 이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의 다각화와 상품의 다품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가는 것을 C.I의 주목적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믿고 있는 가치를 전파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혁신적인 기업들은 정의와 평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상들을 C.I에 주입하기 시작했다. 80년대 후반에는 C.I가 경영전략으로서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경영자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C.I를 다루게 되었다. 80년대 초 국내 금융권의 C.I 도입은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의 확정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목적과 함께 C.I라는 시각적 동일화

체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이루었다. 80년대 C.I의 다양성은 형태와 표현 측면에서 일어났다. 70년대 국의 C.I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워드마크 형식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표현 면에서 평면상에서 움직임의 강조하는 계슈탈트, 그루핑 이론이 대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9년에 개발된 동화은행 C.I의 표현은 곡선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개발되어 90년대 C.I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쾌락주의, 매력, 명성, 그리고 개인적인 표현들로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업을 상징하는 시그니처로서 로고의 이차원적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웹 사이트에서 로고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C.I는 소비자 주도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기업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C.I는 이제 그래픽 요소뿐만 아니라 사운드와 질감까지도 함께 개발되어 웹 사이트 상에서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 국내 C.I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변화되었다. 국내의 시장은 국제화, 세계화의 기틀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기업의 차별화된 이미지 전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는 C.I 주변 환경의 다변화로 인하여 일종의 충격적인 효과와 기업구성원의 의식개혁이 수반되는 기업문화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C.I를 다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I의 형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존재했던 형태와 표현, 색채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표현, 색채들이 상존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90년대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관심은 C.I에 녹색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첨단기술을 갖추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파란색이 많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에 C.I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파스텔톤의 색채나 어둡고 칙칙한 색채들까지도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 4. 20세기 후반 트렌드 분석

### 4.1.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메가트렌드와 디자인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형성요인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과 패션, 공간, 제품, 시각 디자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의 분석 방법으로는 트렌드의 형성요인에서 1970~2002년까지 논쟁이 되었던 사건·사고 중 트렌드로 확장·정착될 가능성이 보이는 기호들을 찾아내어 메가트렌드로 연결시키는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디자인트렌드는 분야별로 분석된 20세기 후반 디자인트렌드 요소에 메가트렌드의 조류가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앞장에서 분석한 패션, 공간, 제품, 시각 디자인의 색채, 소재,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20세기 후반 메가트렌드의 조류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을 밝혔다.

또한, 색채트렌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색채분석은 20세기 후반 디자인 흐름을 저술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색채분석은 각 디자인 분야별로 선정된 대표 이미지 자료에서 추출된 총 489색을 대상으로 하여, 패션 디자인 204색, 제품 디자인 162색, 시각 디자인 123색이 분석되었다. 연대별로는 1970년대 104색, 1980년대 146색, 1990년대~2000년대 초 239색이 분석되었다. 색채분석은 시각색과 촉색기를 병행하여 촉색한 후 먼셀의 40 색상과 PCCS의 12색조로 분석하여 시대별, 분야별 색채특성과 대표색을 추출하고 디자인 트렌드에 나타난 색채의 변화추이를 규명하였다.

## 4.2.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흐름

### 4.2.1. 20세기 후반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의 흐름과 이에 의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그림 4-1>과 같으며,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20세기 후반을 이끌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의 조류는 여성적 사고, 자연으로의 회귀, 은둔 속 안식 트렌드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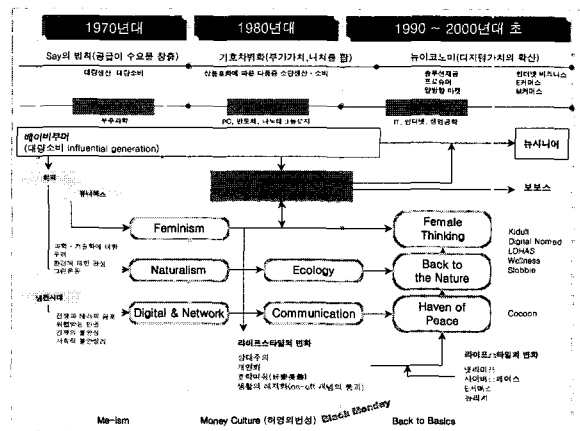
여성적 사고 트렌드는 1970년대 이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베이비 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근원으로 하여 자기중심주의, 페미니즘의 대두와 함께 급속하게 트렌드화 되었다. 초기의 여성적 사고는 1980년대의 여성이 처한 사회환경 속에서 여피문화나 페미니즘적 사고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남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성적 사고는 여성의 남성화라는 70년대 젊은층에서 나타났던 유니섹스 문화를 포용하며 남성의 여성화라는 남성해방으로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개성추구, 행복추구, 충동적 구매성향, 사치풍조, 수평적 인관관계 지향, 공동체문화 등 감성적 태도 혹은 감성의 공유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미니멀리즘, 스포티즘, 유크적이며 컬러풀한 디자인, 로맨틱 스타일 등의 디자인 경향의 변화를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

자연으로의 회귀 트렌드는 70년대 초 과학·기술화에 대한 우려로 일어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자연적인 소재나 색채를 활용하는 등 자연에 대한 관심이 단순하며 표피적이었다. 80년대 중반 자연환경에 대해 에콜로지라는 좀더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연으로의 회귀 트렌드는 20세기 후반에 주요한 트렌드로 정착하였다. 자연으로의 회귀 트렌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리사이클 문화, 과거에 대한 향수, 과거에 대한 동경, 건강을 위한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 느낌의 철학, 사회로부터의 도피, 자연과의 만남 등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났다. 이는 키덜트(kidult), 로하스(LOHAS), 웰니스(wellness), 슬로비(slobbie)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을 등장시켰다.

은둔 속 안식 트렌드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냉전시대에 전쟁과 테러의 공포, 위협받는 인권, 불안정한 경제상황,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부터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메가트렌드 조류의 변화에 의해 은둔 속 안식에 따른 사회접촉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은둔 속 안식 트렌드는 외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은둔 속 안식을 자처하는 코쿰(cocoon)족과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무장한 신세대들의 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닌 사이버코쿰(cyber cocoon)족으로 양분·양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20세기 후반 메가트렌드의 흐름 (박영배 2002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



### 4.2.2. 20세기 후반 디자인트렌드

1970년대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은 크게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 양식의 맥락 하에서 이루어

어졌다. 70년대 전반에 걸쳐 모더니즘은 대중적, 일상적 표현을 추구하며 직선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70년대에 시작된 페미니즘은 모더니즘 사조 아래서 남성적인 직선요소를 선호하였다. 70년대 후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연주의, 개인표현주의 등으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고 개성적인 색채와 형태를 추구하였다. 하이테크 디자인은 70년대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소재 면에서는 모더니즘 성향을, 표현방식 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을 따랐다.

1980년대에는 70년대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 양식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에콜로지 경향이 등장하였다. 모더니즘은 70년대 초에 비해서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였지만 꾸준히 디자인에 반영되면서 기하학적 형태를, 포스트모더니즘은 80년대 초 부각되면서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부여하였다. 하이테크 양식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80년대 중반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자연으로의 회귀, 자연주의 트렌드가 디자인에 반영되면서 색채 측면에서는 그린과 블루 색상을 중심으로 한 자연색채가, 소재 측면에서는 천연소재가, 형태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터치감이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또한, 이는 기하학적 형태에서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의 형태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밖에 해체주의는 불안정한 형태의 가변성을 추구하며 80년대 후반 공간 디자인의 트렌드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모더니즘 성향이 다시 부각되면서 미니멀리즘, 스포티즘, 퓨처리즘 등의 트렌드로 나타났다. 에콜로지는 80년대 후반 이후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리사이클 디자인을 비롯해 에코 프로젝트 등으로 전개되었다. 90년대 중반 해체주의 경향은 공간 이외에 패션 등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90년대 대표적인 디자인 트렌드의 흐름인 모더니즘 디자인은 여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점차 감성적인 측면을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르게 디자인의 형태는 보다 유기적으로 변하였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이테크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이터치가 디자인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2000년대 초 여성적 사고와 자연으로의 회귀 트렌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여성의 감성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로맨티시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젠과 같은 자연주의에 기반한 모더니즘의 재해석 경향을 비롯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 과거로의 회귀 경향 등이 디자인에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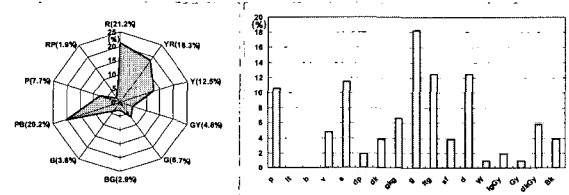
### 4.3. 20세기 후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종 제품에 적용되어 나타난 색채를 분석하였으며 패션, 제품, 시각 분야에서 연대별로 대표되는 트렌드색채를 추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색상·색조 분포로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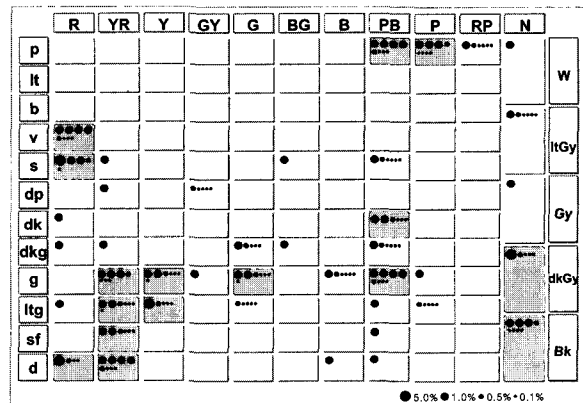
#### 4.3.1. 1970년대의 디자인트렌드에 나타난 색채 특성

70년대에는 [그림 13]과 같이 주요한 색상의 분포가 R(21.2%)>PB(20.2%)>YR(18.3%)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제품, 시각의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R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색상분포에서 PB계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각 디자인 분야의 C.I 색채에 기인한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R, YR계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색조는 g(18.3%)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패션은 g(37.2%), 제품은 p(20.5%), 시각은 s(35.3%)에 색조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그림 14]와 같이 R에서는 dl, Y에서는 ltg, PB에서는 p, 무채색에서는 dkGy 색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13] 1970년대 디자인에 나타난 색상/색조 분포



[그림 14] 1970년대 디자인에 나타난 색상/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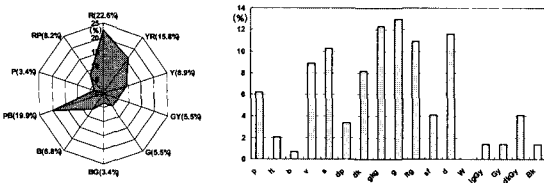


#### 4.3.2. 1980년대의 디자인 트렌드에 나타난 색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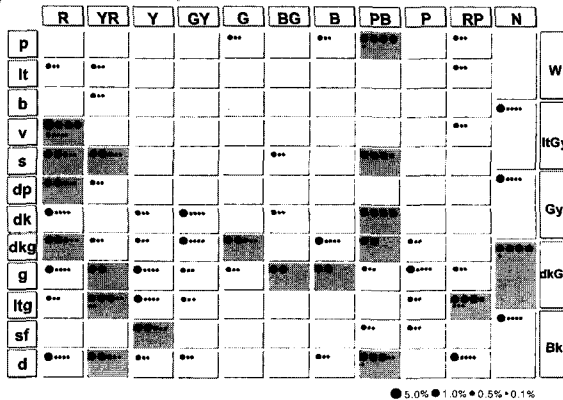
80년대에는 [그림 15]와 같이 색상의 분포가 전체

적으로 R(22.6%)>PB(19.9%)>YR(15.8%)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는 PB(18.3%), 제품에서는 YR(16.6%), 시각에서는 R(42.1%)이 높게 나타났다. 70년대와 비교하여 색상이 R을 중심축으로 볼 때 RP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R, YR 중심 색채에서 변화되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는 g(13%)가 가장 많았으며 패션과 제품은 g(19.7%), 시각은 v(34.2%)의 색조에 많이 분포되었고, 전반적으로 70년대에 비해 색조가 어둡게 변화하였다. [그림 16]과 같이 R은 v, PB는 s와 v, 무채색은 dkGy 색조에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15] 1980년대 디자인에 나타난 색상/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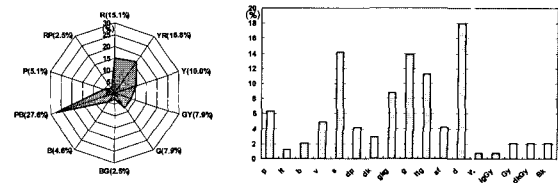
[그림 16] 1980년대 디자인에 나타난 색상/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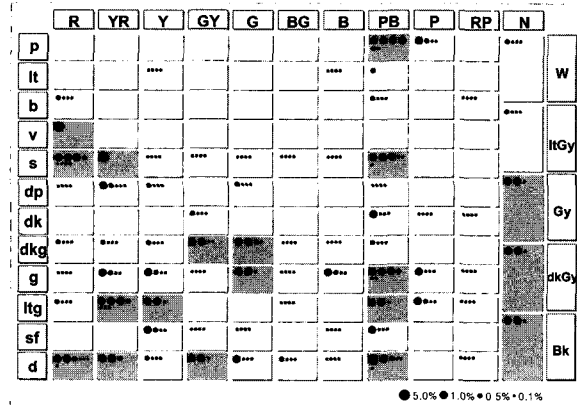
### 4.3.3. 1990년대~2000년대의 디자인 트렌드에 나타난 색채 특성

90년대에는 [그림 17]과 같이 전체적으로 주요한 색상의 분포가 PB(27.6%)>YR(16.8%)>R(15.1%)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색상이 PB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패션에서의 색상은 PB(25.2%), 제품은 PB(26.3%), 시각은 PB(32.4%)가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전체적으로는 dl(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패션에서는 Itg(20.0%), 제품은 dl(25.0%), 시각은 s(33.8%) 색조에 많이 분포했다. 90년대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색채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70, 80년대와는 현저하게 다른 색조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과 같이 R은 v, YR은 s, PB는 dl에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무채색은 다양한 색조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17] 1990년대~2000년대 초 디자인에 나타난 색상/색조 분포



[그림 18] 1990년대~2000년대 초 디자인에 나타난 색상/색조 분포



이상과 같이 20세기 후반 R색상은 시각 디자인 분야인 C.I 색채의 영향으로 v색조로 많이 나타났으며 패션과 제품 디자인에서 dl과 dkg색조가 점차 증가하였다. YR색상은 패션 분야에서는 Itg색조가, 시각 분야에서는 s색조가 전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가운데 dp색조가 90년대 이후 증가하였다. Y색상에서는 Itg색조가 20세기 후 계속 나타나고 있다. GY색상은 90년대 이후 다양한 색조로 표현되었다. G색상은 g와 dkg색조인 회색조에서 점차 증가양상을 보였다. PB색상은 g와 dl, sf색조에서 증가곡선을 보였고 사용빈도가 높은만큼 다양한 색조로 표현되었다. BG, B, P, RP색상은 사용빈도가 낮아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후반 색상에서 보이는 색조의 변화양상을 연도별로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 각 색상별로 색조의 시계열적인 증가 혹은 감소양상을 파악하여 근 미래의 색상·색조를 전망할 수 있었다. 근 미래에는 Purple Blue, Yellow Red, Green 색상과 grayish, dull, deep 색조, 그리고 여성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무채색 계열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후반 트렌드의 조류는 여성적 사고, 자연으로의 회귀,

은둔 속 안식 트렌드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디자인트렌드의 흐름은 197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의 맥락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가 지속되면서 80년대 후반 대두된 에콜로지를 반영하였다. 1990년대에는 모더니즘이 다시 부각되고 에콜로지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에는 여성적 사고와 자연으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트렌드가 지배적이었다. 셋째, 20세기 후반 디자인의 색채트렌드는 색상에서는 Red 중심에서 Purple Blue 중심으로, 색조에서는 grayish 중심에서 dull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근 미래에는 Purple Blue, Yellow Red, Green 색상과 grayish, dull, deep 색조, 그리고 여성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무채색 계열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트렌드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화된 방법론과 자료가 부재한 국내의 실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의 트렌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환경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메가트렌드와 디자인트렌드와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디자인 분야의 근 미래 디자인 트렌드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병석. (1999). "20세기의 패션과 디자인트렌드 변화 사례 연구". 국민대조형논총, 18 : 433-456.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국제.
-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 김대환, 김문환, 김석준. (1999). 해방 반세기 한국사회의 성찰과 반성. 서울: 현암.
- 김문조. (1999).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서울: 고려대학교.
- 김영인 외.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 김은경. (2002).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 고찰과 복식디자인.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우. (1990). 전략적 CI의 전개. 서울: 아시안경영출판사.
- 김현경. (2003). 메가트렌드의 형성요인과 디자인트렌드 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배. (2002). 트렌드 분석 방법론. 서울: 연세대학교 세미나.
- 배규한. 1995. 미래사화학: 21세기의 이해와 설계. 서울: 사회비평사.
- 양동주. (1996). 한권으로 보는 20세기 대사전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 조선문화일보문화부, 편. (1999). 아듀 20세기 2. 서울: 조선일보사.
- 원유홍. (1998).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사. 서울: 정글.
- 윤수정. (2002). 패션트렌드의 다중화·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편. (2001). 20세기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 이정훈. (2001). 1970년대 국내·외 패션 트렌드 비교·분석.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진. (2000). 패션 트렌드 정보가 여성복 디자인 기획에 미치는 영향.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일본경제신문사. 이정환, 역. (2002). 세계 경제 트렌드: 세계 경제 상식 100문 100답. 서울: 위즈덤하우스.
- 임석재. (2002). 임석재 교수의 1990년대 한국 현대건축사: 기하와 건축. 서울: 북하우스.
- 전경련 산업디자인 특별위원회. (2002). 제2회 산업디자인 국제 컨퍼런스 2002: Design Experience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디자인 특별위원회.
- 전영미. (1994).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서울: 기문당.
- 정시화. (1991).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 정진오. (1998). 패러다임에 의한 한국 현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민. (2002). 시대정신을 반영한 Corporate Identity Design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경돈, 임경훈, 편역. (2001). 20세기 현대건축론. 서울: 서우.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2). 한국디자인진흥 30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 Ann Ferebee. 김경준, 역. (1987). 디자인 역사. 서울: 국제.
- Bevis Hillier. 조규화, 역. (1993). 20세기 양식. 서울: 수학사.
- Charles Piliis, Alan Axelrod. 홍정민, 역. (2000). 20세기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좋은책만들기.
- David Bond. 정현숙, 역. 2000.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 John Naisbitt, Patricia Aburdene. 김충기, 역. (1997). 메가트렌드 2000: 세기말 대변혁 10가지!. 서울: 한국경제신문.